

八〇年代의

韓國美術史學

崔 淳 雨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야기의 內容은 과거 우리 美術史의 반성과 앞으로의 바람직한 所望에 대해서입니다. 뒤돌아 보면 과거 우리 미술사는 半世紀의 歷史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반세기라 하면 보는 자도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異論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로서 처음으로 近代의 學問의 眼目으로 한국미술 個個의 작품을 관찰해서 학계에 소개한 것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아닌 外國人 세끼노 데이(關野貞)였을 것입니다. 關野貞은 1902년에 한국에 와서 당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한국의 史蹟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韓國建築調查報告書」였습니다. 이것은 그 제목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한국건축의 조사보고였지만 그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판단하면 美術史學的인 資料를 상당히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主目的인 建築을 폭넓게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어려운 시골여행을 하면서 그의 눈에 비칠 수 있었던 것을 대상으로 했고, 지금 보면 그것도 資料紹介 정도로 다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日本學者들의 주목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맨 처음 韓國美術史에 손을 댄 분은 아시다시피 朴鍾鴻교수입니다. 박교수가 「開闢」잡지에 몇 차례에 걸쳐서 연재한 「朝鮮美術史」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사람이 손을 댄 맨 처음의 일이었다고, 그 뒤에 독일사람 에칼트신부가 독일어와 영어로 된 한국미술사를 펴냈습니다. 에칼트신부는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안에 눈에 띌 수 없는 자료들을 그대로 集成해서 자기 나름의 고찰을 다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업적들을 본격적인 한국 미술사학의 시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은, 高俗燮先生이 京城大學 美學·美術史學科에서 한국미술사를 전공하시게 된 것이 우리 한국사람 스스로가 손을 댄 우리 미술사회의 시발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유섭선생은 경성대학교를 마친 후 研究助手 생활을 여러 해 거쳐서 開城府立博物館長으로 부임한 뒤 해방 1년전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아깝게도 세상을 버리셨습니다. 고유섭선생이 10여년이라는 짧은 연구생활에서 이룩한 많은 論攻들은 오늘날의 우리 美術史를 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방직후 미술사를 하고자 나선 몇 사람이 있었을지나만 그 몇사람들은 바로 그 밑거름 위에 발을 붙였고 또 거기에서 鼓舞되었습니다. 1950년대 말기에 들어서면서 이들 몇 사람 선배들 주위에 젊은 학생들 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이 성숙되어 1960년 여름 「考古美術同人會」라는 이름으로 우리 美術史學會가 發足되었습니다. 이 「고고미술동인회」를 중심으로 10여년 동안에 젊은 멤버 여러분이 전국의 유적을 누비고 삽살이 遺存文化財의 現狀을 밝혀 많은 새 자료의 발굴과 개발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을 쌓은 젊은 世代, 특히 鄭永鎬교수를 비롯한 소장멤버들의 업적은 우리學會가 自負할 만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60年代 末期부터 우리 학도들이 미술사를 전공하기 위해 美國, 유럽, 中國 등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美術史學을 공부하고 속속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위과정을 하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考古美術同人會」의 총원멤버들이 그동안 國內에서 어렵고 고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에 外國에서 새로운 方法과 眼目으로 미술사를 공부하고 돌아온 여러분의 學界 참가는 韓國美術史學의 발전에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回顔할 때 韓國美術史學會는 결코 외로운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미약한 것도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외국에서 돌아온 분들은

그 고장에서 우선 외국어를 익히고 또 여러가지로 국내정보와 자료의 결핍으로 어려운 공부를 하겠지만 국내에서 공부한 분들 또한 그에 못지 않은 어려움과 대결을 해 왔습니다. 미술사에 관한 충분한 도서실이나 없었고 어디에 집성된 자료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공공기관이나 개인의 所藏資料 또한 손쉽게 볼 수가 없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고생길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점에서 나와 여러분이 생각해 본 오늘의 미술사는 과연 어디에 와서 있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의 이 美術史大會는 보람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미술사 학은 아직도 어리다고,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어리다고 보는 것은 보기에 따라 여러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섭렵하고 더 많은 자료를 소화해서 좀 더 폭넓고 좀 더 깊이 있는 相互간의 연구성과가 연구자 서로간에 유기적으로 기여를 하게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學部에 아직도 美術史의 정규코스 하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정규로 미술사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아직도 열리지 않았읍니다. 考古學科는 서울대에 이미 있고 지방 대학도 신설된 곳이 있지만 美術史學科가 아직도 개설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學界와 社會가 美術史學에 대한 인식이 아직 그만큼 두텁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미술사학을 하는 사람들이 좀 부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통 우리 국민 대중들은 아직도 考古學과 美術史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읍니다. 따라서 미술사라는 것은 考古學科에서 하는 것인가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읍니다. 어쨌든 미술사라는 말 자체가 생소합니다. 사회의 인식이 아직도 이렇게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활동하는 데에 보이지 않는 여러가지의 장애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研究所, 博物館, 美術館이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아직도 중요한 알맹이가 되는 우리 미술사 연구의 기초적인 圖書資料가 구비돼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연구능률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弘益大學校 大學院에 개설된 美術史學科와 기타 대학의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碩士學位論文들이 쏟아져 나왔읍니다. 대학원에서 미술사 계몽을 전공한 사람이 가장 많았던 곳은 아마 홍익대학과 이화대학이었읍니다. 논문의 수준이야 어쨌든 미술사학을 전공한 사람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미술사 인구를 넓히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단 몇 사람이라도 장래성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합니다. 그리고 東國大學校 學部에는 佛敎美術史 전공 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佛敎美術史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배출된 사람들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미술사의 도서실로 가장 내용이 있다고 치는 것이 國立博物館의 도서실입니다. 그러나 8·15 이후 박물관이 큰 예산을 갖고 책을 사지 못한 까닭에 해방 후의 國內外 學術雜誌들이 뜻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서적들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박물관 도서실의 예를 들었읍니다만 말하자면 여러분의 研究生活에 있어서 개인적인 부담과 고생이 큼니다.

이런 여러 점을 綜合해서 80年代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어떠한가 나는 몇 가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선 80年代에 들어서서는 서울에서만 아니라 四年制 大學의 정규 미술사학 코스가 꼭 開設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규 미술사학 코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정통적으로 진학함으로써 韓國美術史學의 바탕이 든든히 세워지는 포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美術史 文獻資料의 集成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서울 안에서 우리 미술사의 구비된 도서실이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과 국립박물관이 갖고 있는 美術史 관계의 圖書를 棼制를 活用해서 소위 책을 有無當通, 즉 여러 사람들이 그 종합목록에 의해 책을 찾아 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사실 그럴만한 내용도 풍부치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大學이나, 研究所, 博物館, 美術館이 內외의 값 비싼 文獻을 사는데 있어서 덜어놓고 자기 살생각을 말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자기 그 담당부분에서 나누어 사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많은 문헌을 모을 수 있습니다.

세째는 우리가 이제까지 접은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니뭐니 해도 미술사 연구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벌써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만이웃 日本에는 미술사하는 사람이 700명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훨씬 늘어났을 것이지만, 그래서 일본사람들은 미술사의 시대와 부문을 세분해서 좁고 깊게 파고들어 갑니다. 따라서 각자의 연구성과가 동료 연구자들 사이에 서로 큰 도움이 되어 미술사 전반에 걸치는 能率과 發展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80年代에는 우리 美術史人口가 擴充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릴 것이 team-work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연구나 조사의 대상에 따라선 개인의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만 어떤 큰 연구 과제는 개인 혼자 힘 보다는 事前에 잘 짜여진 共同研究 또는 連合研究를 통해서 能率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꼭 필요한 傍系學問, 즉 歷史學, 考古學, 民俗學, 地質學, 化學, 物理學 등의 방면에까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서 遺蹟이나 遺物을 발굴이나 조사할 때各界의 전공자들이 포함되어서 신속하게 有機的이고도 능률적으로 조사 연구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한 사람의 능력에만 너무 기대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80年代에 미술사를 하는 분들은 우선 世界的인 視野에서 美學과 美術史 方法論의 推移에 적응해 나가는 태세를 한층 갖추어야만 될 뿐더러 國際的인 美術史 情報를 재빨리 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돈이나 기능 등 여러가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이는 공공기관, 가령 大學이나 精神文化研究院, 國立博物館 등이 재빨리 정보를

모아 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과 관심이 傾注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韓國美術史를 하는 입장에서 中國大陸과 中央亞細亞에서 얻어지는 정보, 특히 우리와 관련이 깊은 資料의 受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것만 다룬다는 것에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北韓資料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80年代에는 이러한 美術史 情報를 모아서 누구나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태세가 갖추어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지금 美術史를 하는 사람 중에는 물론 참신한 방법과 정보에 의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既成觀念이나 既成知識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停滯의 요인을 이루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80年代에는 우리 미술사의 그러한 때를 벗어날 때가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술사뿐만은 아니지만 모든分野에 아직도 어딘가에 日本人들이 남긴 殘滓의 思想,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 은연중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후 30여년 우리 學會가 발족된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는 日本的인 썩거기를 털어 버리고 韓國美術史學 本然의 자세를 분명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훌륭한 眼目으로 美術史 개개의 成果를 綜合, 分析하여 체계를 세우는 분이 있습니다만 80年代야말로 우리 韓國美術史學會 여러분의 활동이 한층 새로워지고 능률화되어 거기서 나온 깊이 있는 個個의 연구가 높은 次元의 안목으로 종합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韓國의 韓國美術史를 定立하는 80年代의 指標입니다.

關野貞 (당시 東京帝國大學助教授) 1902年來韓

高裕燮 京城大學法文學哲學科(美學及美術史專攻) 卒業 1930年 3月
京城大學助手 1930年 4月~1933年 3月

Eckardt, Andreas 神父 1920年代의 滯韓 History of Korean Art (1928 July) 刊 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

(Leipzig: Hiersmann 1929) 刊

林鍾鴻 (서울大學校教授)

朝鮮美術의 歷史的考察 開闢誌 22호~27호(1922年 4月~9月)

(國立中央博物館長)